

“여러분께 다가가겠습니다”

‘2016년 제15대 정기 대의원대회’ 활발한 토론 이어져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본부장 윤창현)는 지난 4월 22, 23일 이틀에 걸쳐 강원도 고성군 벨 피노 리조트에서 정기 대의원 대회를 열었다. 이번 대의원대회에선 대의원 및 집행부 등 40여 명(위임 20명)이 참석해 열띤 의견 교환과 토론이 진행됐다.

대의원대회에선 우선 임금협상과 콘텐츠 요율 변경의 성과 보고와 함께 노조 휴게실 운영과 호프콘서트 등 조합의 문턱을 낮추고자 벌인 사업 보고가 이뤄졌다.

올해 사업 계획 보고에선 조합원과 조합의 유대감과 친밀감을 높이기 위한 ‘계단 오르기’, ‘조합

원 캠프 한마당’ 등의 조합원 참여 사업에 대한 대의원들의 관심이 높았다.

윤창현 본부장은 조합원들에게 다가가게 가장 중요하고 선행되어야 하는 조합 활동의 목표라면서 “조합이 아무리 거창한 구호를 내걸어도 조합원들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 조합원들이 참석하는 사업을 진행하려 한다. 조합원 참여 행사를 연간 4회 정도 진행 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방송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상향평가 공정성 항목 강화’, ‘보도국 긴급발제’ 등의 제도가 새롭게 보완된 만큼 사전적 예방에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윤 본부장은 “공정방송실천위원회 활동이 그간 사후적 대처에 머물렀다. 그동안 방송 후 사후적 처벌, 징계, 사과를 요구하는 활동이 주로 이뤄졌다면 15대에서는 공정성이나 공익성이 훼손되는 일을 미연에 방지하고 방송의 질을 제어 할 수 있는 데까지 제어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이밖에 ‘조합원 휴게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대의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했고, 조합은 사용 실태를 파악해 운영 시스템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계단 오르기..정말 하는 거야?”

“계단 오르기 하면 좋잖아. 건강도 챙기고, 선물도 주면 호응도 좋을 테고.” 계단오르기 사업은 사무처 회의에서 조준동 수석본부장이 내 놓은 한마디에서 시작됐습니다.

곧바로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14층까지 오르자.” VS “22층까지 오르자.”

“구급차를 대기시켜야 한다.”

“중간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는 변칙 플레이는 어떻게 막느냐?”

심지어 최기환 대외협력국장을 시범타석에 올려 22층까지 직접 올라가 봤습니다.

“할 만 하네. 합시다.”

조준동 수석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시당할 줄 알았는데. 정말 하는 거야? 고마워. 그나저나 15대 집행부 추진력 죽이네.”



5월 4일, 오후 1시 전에
1층 노조휴게실 앞 계단에서 START!

여러분들이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내 주시면
15대 집행부는 곧바로 발동 걸겠습니다

5월의 계단오르기

건강한 조합원! 튼튼한 노동조합!

일자
2016. 5. 4 (수)
참가조건: 조합원 누구나

시간
12:50~ 시작
(완주 하신 분은 13층으로 모이세요. 상품 추첨이 있습니다)

코스
출발: 1층 노조휴게실 앞
도착: 22층 계단

코스 중간 스탬프를 꼭 찍고 완주해주세요!
- 완주하신 참가자 전원 '1만원권 음료쿠폰' 제공
- 완주자 중 추첨 통해 상품 제공 (13층 로비)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

성역 없는 진실 추구가 곧 경쟁력!

〈‘그것이 알고 싶다’-세타의 경고! 경고!〉에 대한 사회적 반향에 부쳐

지난달 16일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국정원 연관 의혹과 청와대와 해경 등 정부의 부적절한 구조대응을 파헤친 ‘그것이 알고 싶다’ 1027회가 뜨거운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다. 동시간대 시청률 1위, 주요 포털의 실시간 검색어 1위는 물론이고 방송 이후 며칠간 SNS 상의 버즈량은 울들어 방송된 ‘그것이 알고 싶다’의 회차를 모두 합한 것보다 월등히 많은 정도로 폭발적 관심을 불러 모았고 프로그램의 내용과 제작진에 대한 찬사와 격려가 쏟아졌다.

인용된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권력과 자본의 입김에 휘둘리지 않는 성역 없는 진실 추구를 통해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결국 SBS의 경쟁력을 드높이고 일터를 지키는 첩경임이 명백히 증명된 셈이다.

그러나 이러한 좋은 프로그램이 4.13 총선을 통해 여소야대의 정국변화가 없었으면 방송 가능했겠느냐는 조합원들의 자조 섞인 목소리가 적지 않다. 실제로 총선 이전 SBS는 두 차례에 걸친 세월호 청문회는 거의 보도하지 않았고 ‘노동개혁’ 등 사회적 논란이 불가피한 이슈들에 대해 정부 여당의 스피커 노릇을 충실히 이행해 왔다. 조합원들이 그토록 요구해도 제대로 반영조차 되지 않던 야당의 반론이 총선 이후 뉴스에 한 두 줄 들어간다고 해서 공정보도를 실현하고 있다고 믿는다면 커다란 착각이 아닐 수 없다.

언론의 사회적 책임 이행과 끈질긴 진실 추구가 배제된 채 구렁이 담 넘어가듯 정치적 지형 변화에 따라 춤을 추는 것은 또 다른 출타기일 뿐이다. 15대 집행부는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 자율성을 지켜내는 일이 SBS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제고하고 우리 일터를 수호하기 위한 책무임을 인식하고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갈 것이다.



권기홍 부장 永眠

SBS 제작리소스팀 권기홍 부장이 지난달 10일 불의의 사고를 당한 뒤 보름째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다 지난달 25일 영면하셨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바랍니다.

- 약력** 1961년 6월 13일 생
1985년 11월 KBS 영상제작부 입사, 1991년 11월 퇴사
1991년 11월 SBS TV제작국 영상제작부 입사
2004년 제7대 뉴스팀 노조위원장
- 촬영작품** 2006.11 - SBS 특별기획 드라마 '게임의 여왕'
2011.07 - SBS 주말특별기획 드라마 '여인의 향기'
2012.04 - SBS 아침 연속극 '내 인생의 단비' 등 다수



세월호 희생 가족 지원 사업



노동조합은 『다시 봄이 올 거예요』- '416세월호 참사 작가기록단', 창비 40권을 구입해 노조 휴게실에 비치하고 노조사업을 통해 노조원들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또 '세월호 가족 협의회' 생존 학생 지원을 위한 기금에 50만원을 기부했다.

『다시 봄이 올 거예요』는 세월호 참사 당시 생존한 단원고 학생 11명과 형제자매를 잃고 어린 나이에 유가족이 된 15명이 털어놓은 2년여 삶의 구술이자, 그들이 어디에도 털어놓지 못한 속내를 담은 최초의 육성기록집이다.



SBS A&T 중계기술팀의 이우승 차장이 4월 22일부터 노조에 합류해 SBS 본부 사무처의 마지막 퍼즐을 완성했습니다.

이우승 | 한 번 더 보고 여러분에게 귀조직쟁의국장
A&T 중계기술팀 | 기울이고, 깊이 생각하는 전임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